



1 관세청 FTA 관련 동향

FTA 무역인재 채용 한마당 Job-Dream 페스티벌 개최

관세청은 FTA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등의 가장 큰 애로인 FTA 전문인력 부족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인재와 중소수출입업체간의 일자리 매칭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본부세관에서 지난 5월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체 등 90여개 구인기업과 원산지관리사,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면접 노하우 강의,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주는 1:1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FTA 무역인재 양성'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매년 1만 여명의 무역인재를 양성해오고 있고, 또한 FTA 무역인재가 필요한 수출입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매칭)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천 여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FTA 무역인재 Job Dream 페스티벌에서 취업 상담 창구를 둘러보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참석내빈

관세청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FTA 무역인재 양성과 무역인재와 기업간 연계 시스템 구축, 인재 고용에 따른 수출증가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고리 완성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창출기업’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히면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의 일환으로, 해당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마련하여 관세청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관세조사 유예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대상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가운데,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관세청이 제시한 법인 외형별 채용기준은 2016년 1천만 달러 미만 수입기업의 경우 4% 이상, 1천만 달러~5천만 달러 수입기업은 5% 이상, 5천만 달러~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은 10% 이상의 채용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때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편, 관세조사 유예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업 외에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연구소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등도 해당되며,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과 대형사고·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이나 위기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여 총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가 유예되었다.

YES FTA 전문교육사업 착수

관세청은 지난 3월 28일 중소기업의 FTA 인력수급을 위해 교육 참가자의 수준·업종·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액 무료의 FTA 전문교육 사업을 개시하였다.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은 FTA관세특례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FTA활용 전문인력과 FTA 미래인재를 양성을 위해 ‘일반분야’·



지난 2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YES FTA 전문교육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관세청 김재일 FTA집행기획관

‘특화분야’·‘수요자맞춤형 분야’등 3개 분야 1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연간 710회, 총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YES FTA 전문교육의 일반분야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미래인재양성과정, 비즈니스모델 창출과정의 4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실무자에서 CEO까지 FTA에 대한 이해 확대와 FTA 활용 역량 유지를 위한 미래 FTA활용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분야는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 FTA-PASS의 총 3개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업체별-업종별 등 수요자 맞춤형 방식의 교육 과정으로 업종별(공단별)맞춤형 과정과 1:1 맞춤형 과정,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업종별 맞춤형 과정은 유연한 산업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특화 업종 종사자, 농공단지 등 교육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1:1 맞춤형 과정은 컨설팅 사업 비수혜 업체의 수출물품 FTA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업체별 방문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은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합동 교육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관세청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3년 동안 FTA 집행 경험과 폭넓은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전국 본부세관에서 'FTA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해 매년 8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 왔다.

FTA 저변 인력 확대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 극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금번 교육사업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수강생이 FTA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YES FTA 교육지원센터는 교육 수료자인 중소기업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FTA 활용 교육을 제공하며, 미취업 수강생에게는 FTA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한 기업의 FTA 활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연계하여 FTA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순회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대상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대응과 관련하여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FTA 상대국 동향,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 등의 설명과 그 동안 제기되었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8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15개 FTA 협정 하에 52개국과 FTA 교역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인어서, 이로 인한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 시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터키에서 섬유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위반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도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특혜 폭이 커진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원산지검증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정신문, 2017. 6. 8 기사인용)

한-중 FTA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한-중 FTA에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Certification of Non-manipulation) 발급기준이 수정·적용된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된 후 선적(해상 또는 항공)되고 있는데,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적입될 경우 비가공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중국의 원산지가 인정되며, 컨테이너에 화물의 적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중 FTA 협정 제3.14조에서는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어, 한-중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상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한편, 지리적·운송 상의 이유로 직접운송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홍콩을 경유하는 한-중 FTA 원산지 상품의 경우 단순히 지리적·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단일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L)이 발급되거나 홍콩의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면 직접운송의 예외가 인정된다.

금번 발표된 기준은 한-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의 제출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홍콩에서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컨테이너 번호와 컨테이너 봉인(seal)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도 비가공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벌크) 화물은 홍콩에서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에 환적될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였다.

다음은 자세한 비가공증명서의 발급기준과 신청절차 및 교부처이다.

1. 발급기준

내용	화물종류	보관유무	발급필요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 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컨테이너 화물 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벌크화물 ³⁾	홍콩에서 미보관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 ⁴⁾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된다.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2. 신청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 ※ 구비서류 :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 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 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모든 '비가공증명서'신청은 다음표의 종류 A항목 서류 심사비용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B~D항목의 부가비용이 추가됨

종류	운송방식	처리방법	비용(HK\$)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155
B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625
C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910
D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1,470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3. 교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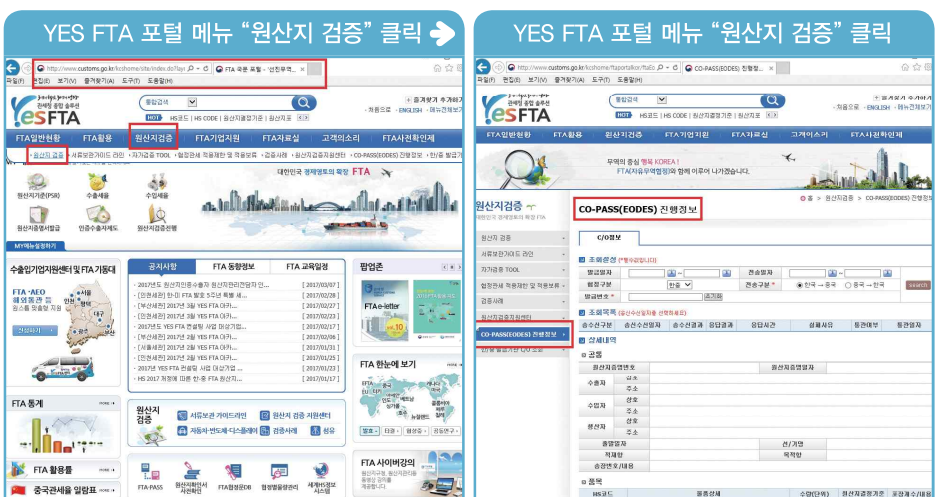
발급장소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 7樓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롤센터 赤鱗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 1樓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 동일, 일요일 휴무)	24시간
전화번호	(852) 3152 0233	(852) 2116 2024

한-중 FTA 원산지 전자교환자료시스템(CO-PASS)
APTA 확대

관세청은 한·중 원산지 전자교환자료시스템의 전면시행(2017. 5. 11)으로 양국 간 APTA 원산지증명서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적용신청과 동일하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때도 수입신고 시 APTA C/O의 원본 제출이 생략된다.

한·중 간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자료교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www.yesfta.customs.go.kr) 원산지검증 메뉴 『CO-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휴대폰 서비스 제공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승인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지난 4월 19일부터 제공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휴대폰 알리미 서비스는 Uni-Pass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원산지증명결과'를 선택하면, 전송비용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 개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 소재)는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를 지난 4월 25일 개소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위한 품목번호 확인 1:1 맞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중남미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5월 30일 중남미 FTA 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남미간 FTA 이행·협상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중남미간 FTA에 원산지증명 교환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FTA 관련 동향

2

제5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7일 제5차 한-EU FTA 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검증절차 주해서 도입, 인증수출자 이슈, PSR(원산지결정기준) HS 2017 전환 등의 FTA 이행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관세청은 공인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제안하고 한-EU AEO MRA 체결 논의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개최

산업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원산지, 기술무역장벽(TBT), 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23개 챕터)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스라엘과의 FTA 협상은 지난 2016년 6월과 12월에 1~2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신규 FTA 협상 개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美·中에 쏠린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진계획을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러시아 중심의 구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EAEU와는 FTA를 추진하고,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모색한다.

GCC는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바 있고, 멕시코도 2008~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ECA) 실무협상이 중단되었다.

산업부는 미국이나 중국의 통상위험에 대응하고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등의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허브인 이집트와 FTA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이집트 정부에 FTA 협상을 제의했다.

아랍권 최대 인구(9,200만명)를 보유하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및 유럽을 잇는 전략적 허브국가로서, 정부는 한-이집트 FTA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및 중동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체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협력사업 논의 및 FTA 협상 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협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기구이자 관세동맹으로 역외 공동관세 부과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 추진 (4.10)

정부는 제3차 한-EAEU* 협의회를 개최하여 EAEU와 FTA 예비 협의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 EAEU(Eurasian Economic Union)는 2015년 1월 정식 출범하였으며, 구소련 국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4.1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4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기대효과 및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메르코수르는 주요국과의 무역체결 사례가 없어(EU만 협상 진행 중) 무역협정 체결 시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 (4.19~30, 예루살렘)

정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12일간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를 위한 제4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무역기술장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이스라엘 FTA는 진전이 빨라* 조속한 타결 예상된다.

* 1차 협상(2016.6월), 2차 협상(2016.12월), 회기간 협상(2017.2월), 3차 협상(2017.3월)

한-뉴질랜드 FTA 2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뉴질랜드 FTA 발효 1주년(2015.12.20 발효)을 맞아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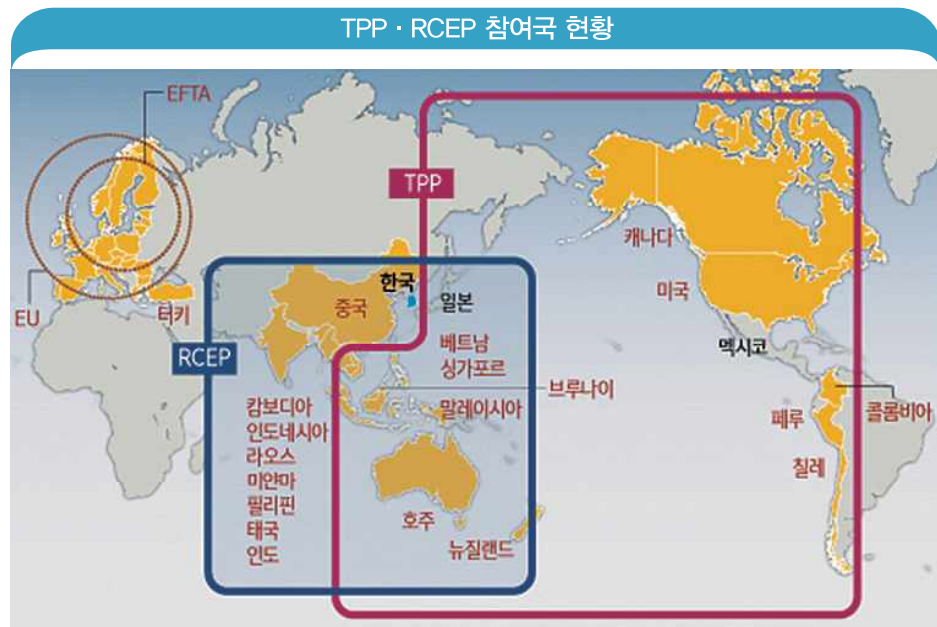
본 위원회에서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통상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산하 이행위원회 일정과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뉴질랜드에서 개최

RCEP 제17, 18차 협상 개최 (5.8~12, 필리핀)

지난 3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RCEP 제17차 협상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으며,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논의했다.



한국과 FTA 발효국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 미국 · 일본 · 캐나다 ·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 참여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 협정) : 아세안 + 6개국(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자료 : “RCEP 최종타결 속도…상품 · 서비스 집중논의” 기사 인용(뉴시스, 2017.3.6)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을 추진키로 했고, 투자 분야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했으며 원산지 · 지적재산권 · 통관 · 전자상거래 · 금융 · 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한국과 EU 양국은 지난 6월 12일부터 3일간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용차 소량수출시 EU절차 완화 등 협정이행상황 점검* 및 통상현안 해소,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무선기기 관련 EU 기술규제 시행 유예, 의약품 업계 진출을 위한 연락망 구축협력, EU 화학물질 규제 동향 공유 등

산업부, 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일 한-콜롬비아 FTA 1주년을 맞아 콜롬비아 보고타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한-중미 FTA 활용 촉진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발효 추진

지난 5월 21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 장관들은 미국을 제외한 채 협정을 발전시켜 오는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들 국가는 “TPP 이득의 실현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질적 수준의 협정(TPP)을 신속하게 발효하는 선택권(옵션)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원조 가입국들의 회원자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미국을 제외하고도 협정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던 일본과 뉴질랜드의 통상장관의 주도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가 기여하는 세계 무역 비중은 40%를 넘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무역 보호주의'를 천명하면서 TPP 공식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겨냥한 듯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TPP를 통해) 자유시장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EU-일본 FTA 연내 타결 합의

지난 3월 21일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 EU-일본 FTA는 2013년에 협상 개시

캐나다,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재개 추진

캐나다는 미국의 TPP 협정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 TPP 참여국 중 교역량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일본과의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뉴질랜드, '中 일대일로(一帶一路)'협약서 서명

뉴질랜드는 지난 3월 28일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일대일로'는 해양판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전략

칠레, 중국과의 FTA 확대 협상 착수

칠레와 중국 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FTA에 e-커머스,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FTA 확대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멕시코 FTA 개선안, 연내 합의 추진

멕시코와 EU는 지난 4월 4일 양국 간 FTA 3차 개선협상을 통해 멕시코산 농산물과 EU산 유제품 등의 관세양허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 협상을 통해 연내 타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 2000년에 체결된 EU-멕시코 FTA는 5년간 2배로 교역규모가 증가됨

인도-영국, 브렉시트 대비 새로운 무역협정 준비

인도와 영국은 지난 4월 4일 뉴델리에서 영국 재무장관의 연례 경제 및 재무회담(EFD)*을 개최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영국 최고의 금융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포함

호주-인도 CECA 협상 재개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0일 인도에서 열린 아·태포럼에서 인도 당국과 중단된 무역협정*을 재개하고 빠른 시일 내 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인도네시아, 미국과 새로운 FTA 체결 추진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5일 미국과 기존의 무역투자협정(TIFA)을 보완한 새로운 FTA 체결을 위해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미국과의 FTA 체결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TIFA를 1996년에 체결하였으나, 관세분야(양국 간 적용 관세율)등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파키스탄과 특혜무역협정(PTA) 활용 활성화 추진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은 지난 4월 29일 이란 경제제재 후 기능을 상실한 특혜무역협정(PTA)*의 활성화를 위해 양허품목을 확대(300여개→500여개)하고, 향후 FTA로 전환하여 추진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란-파키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는 2004년 3월 체결

파키스탄-터키 FTA 8월중 체결 합의

파키스탄과 터키는 지난 5월 11일 양국 간 FTA 제7차 협상을 통해 섬유분야 등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기 협상에서 잠정 협정 안을 교환한 후, 오는 8월 14일 파카스탄-터키 FTA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페루-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페루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5월 22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금명간 실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협상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CER PLUS 자유무역협정 타결

PACER PLUS* 회원국은 지난 5월 23일 피지,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14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6월14일 통가에서 서명식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 태평양 연안 12개국(통가,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마셜군도, 사모아, 솔로몬 군도, 쿡아일랜드, 투발루, 바누아투)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러시아, 이란과 연내 FTA 체결 추진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등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연내에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이란은 2014년 EU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해오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 주도의 EEU 확장을 위해 올 3월 이란과 FTA를 최우선 순위로 결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호주 CEPA 체결 가시화

인도네시아와 호주 양국은 지난 5월 29일 인도네시아-호주 CEPA 7차 협상을 개최하고, 상품 원산지 세관절차 무역원활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금년 말에 협상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태국 FTA 체결 추진

스리랑카와 태국 양국은 지난 6월 8일 태국에서 무역협의회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SEP(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EU EPA* 체결 가시화

EU와 일본 양국은 지난 6월 9일 벨기에에서 실무 협의회(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개최하고, 6월내에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세부사항을 확정된 뒤 오는 7월 G20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